

기윤실, 녹색배달연합, 환경연구소, 새움터,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이야기 공동체,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민중교육연구소, 한국여성국제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대회 한국 NGO 참가단  
제 목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대회 개최  
날 짜 1999. 5. (총 쪽)

## 보도자료

###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 대회 개최 (The Hague Appeal for Peace)

일시 및 장소 : 1999년 5월 11일 - 15일 네덜란드 헤이그

1. 기윤실, 녹색배달환경연구소, 새움터,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이야기공동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민중교육연구소, 한국여성국제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15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1999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하는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대회(The Hague Appeal for peace)에 참가할 예정이다.
2.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대회(Hague Appeal for peace)는 전쟁과 군비 경쟁을 불법화하여 21세기를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로 만들기 위해 세계 평화운동가들이 개최하는 행사이다.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는 전 세계 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하여 폭력적인 분쟁 방지와 예방, 지뢰금지 조약실행, 핵무기 제거, 국제인권법과 인권기구 강화, 군축, 인간안보 실현 등을 주요한 과제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을 확인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3. 또한 해이그 평화대회에는 코피아난(kofi Annan, 유엔사무총장), 넬슨만델라(남아공 대통령), 죄디윌리암스 (대인지뢰협약 노벨수상자) 등 세계 평화운동 지도자 및 인권 운동가, 국제기구 대표 등 10,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회의의 성과를 모아 21세기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의제(agenda)를 채택할 것이다.

이 의제(agenda)는 각 국가와 지역에서 검토, 실행될 것이며, 유엔은 1999년 11월 17일에 열리는 총회에서 해이그 의제(agenda)를 발표할 예정이다.

4. 한국참가단은 이번 해이그 평화대회에서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남북한 정부당국과 미국 등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주한미군 지위와 역할 변화에 대하여 논의를 지속화 할 것, 둘째, 남북한 정부가 군비를 축소하고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안보를 실현하고,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할 것, 세째,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전역미사일 방어 계획과 미 일가이드 라인 개정을 반대하는 것 등이다.

또한 한국 참가단은 세계시민단체들에게 2000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셈에서 21세기 평화 정착과 인권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5. 또한 해이그 평화대회에서 김창수( )무기거래와 동북아 평화문제와 관련하여 발제할, 아셈과 관련하여 이대훈(참여연대 전 협동처장), 정신대 주한미군범죄문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문제 등을 발제할 예정이다.

한국참가단들은 해이그 평화대회를 계기로 국내 평화운동을 강화하고, 냉전구조 철폐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국제평화운동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를 해 나갈 것이다.

#### ■별첨자료■

1. 해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대회 (The Hague Appeal for peace)한국 NGO참가단 성명서 1부
2. 해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대회 (The Hague Appeal for peace)  
한국 NGO 발제 프로그램

\* 해이그 평화대회 홈페이지 주소 : [www.haguepeace.org](http://www.haguepeace.org)

## 성명서

-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 대회(The Hague Appeal for Peace)에 참가하면서 -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세기가 눈앞에 나가오고 있다. 돌아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전쟁 등 대규모 전쟁과 크고 작은 온갖 분쟁을 겪었나. 이로 인해서 인류가 흘린 피와 재산 피해 그리고 인권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1914년 발칸반도에서 시작한 세계 1차 대전 이후 인류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마침내 수 천 년 동안 이룩한 문명을 하루아침에 파멸시키고 인류라는 종(種)의 멸망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핵무기와 온갖 재래식무기를 쌓아 놓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절멸(絶滅)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쏟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20세기의 종착점에 선 지금 이 시간에도 발칸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포연이 가득 차서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인류는 90년대 초 지구를 덮었던 탈냉전의 물결이 1차 대전 이후 80년 동안 전개된 전쟁과 갈등과 군비경쟁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지구촌의 풍경은 세계평화애호세력의 단결이 없이는 다가오는 세기도 전쟁의 세기가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 대회'(The Hague Appeal for Peace)는 전쟁과 군비경쟁을 불법화해서 새로운 천년을 평화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세계의 평화세력들이 함께 하는 행사이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 대회 한국NGO참가단은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첫 세기'로 만들고자 하는 헤이그 회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전쟁을 일시 중단한 정전상태가 5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는 탈냉전의 물결에서 고립된 '냉전의 작은 섬'이다.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계속된다면 전쟁 재발의 가능성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세계평화를 달성하는 것이고 헤이그 회의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군사력 민집지대인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전쟁발발의 가능성성이 없어지고, 군비축소가 이루어지며, 비핵지대가 실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참가단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할 것이며, 헤이그 회의 참가를 계기로 국제평화운동과 연대하고 국내적으로 '평화운동'의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냉전구조 철폐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활동해나간 것이다. 우리의 활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를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평화롭게 어울리는 새로운 평화문화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첫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분단이 지속되고 냉전시대의 군사대결이 멈추지 않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남북한 정부 당국과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문제 관련 당사국들은 조속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군사력 믿집지대인 한반도에서 전쟁의 씨앗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였듯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주한미군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미국 군대는 소련과 북한의 군사력을 억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에 주둔해왔다. 소련이 사라졌기 때문에 군사적인 억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없어진다. 현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4자회담에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군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의정부, 동두천, 평택, 춘천 등 한국의 곳곳에 주둔하면서 기지 무상 사용, 범죄, 여성 매매춘,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들을 파생시켰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기지를 되찾고, 미군범죄와 기지주변에서 발생하는 여성 매매춘을 근절시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미국은 이와 같은 한국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주한미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남북한 정부는 군비축소를 단행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군의 병력은 70만, 북한은 110만으로 추정되어 남북의 병력수를 합하면 미국보다도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다. 한국군의 군사비는 97년의 경우 140억 달러 가량이고 같은 해 북한은 30억 달러 가량을 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한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군사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나는 사실을 살펴볼 때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남과 북이 군사비를 감축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안보를 대안의 안보개념을 수립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위기를 화해와 공존의 민족공동체를 수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넷째, 남북한 정부는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대인지뢰 금지운동은 21세기

**인류에게 평화를 안겨줄 선물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대인지뢰금지협약이 발효한 것은 인도주의의 승리이고, 인류가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한 걸음 전진하게 만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발효를 열렬히 환영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대인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전역미사일방어(TMD)계획과 미일가이드라인 개정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므로 이를 반대한다.** 전역미사일 방어 계획은 요격미사일방어계획(ABM) 위반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미사일 체계를 강화시켜서 끝없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초래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을 보장하는 미국과 일본의 가이드라인 개정은 과거 일본의 군사적 침략에 피해를 입은 주변 국가들을 불안하게 해서 동북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이와 같은 행위가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세기로 만들고자 하는 동북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일본은 과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국가를 침략하였고, 특히 여성들을 군대위안부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일본이 군사대국화 계획을 중단하고 한국의 군대위안부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섯째, 우리는 2000년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ASEM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세기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 분단 현장에서 세계인과 함께 21세기 평화에 대한 희망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21세기는 전쟁이 없는 최초의 세기가 될 것이다.

1999. 5.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대회' 한국 NGO 참가단

기윤실, 녹색배달연합 환경연구소, 새움터, 우리땅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 본부, 이야기 공동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민중교육연구소, 한국여성국제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